

대한항공

2019년 잠정 실적



Disclaimer

-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대한항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.
동 정보는 주식 거래 및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실적 및 재무정보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. 자료의 재무 정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, 본 자료에 기술된 재무정보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 실적을 의미합니다.
- 예측정보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요약손익계산서 (대한항공 별도 기준)

- 영업수익 12조 3천억원 (-3,555억원, -2.8%, yoy)
- 달러 강세로 인한 외화환산손실로 당기 순손실 발생 (외화환산차손익 -3,758억원)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8년	2019년(E)	증 감		비 고
영업수익	126,555	123,000	△3,555	△2.8%	
여 객	77,375	77,675	+300	+0.4%	수송 +3.8%, Yield △3.3%
화 물	30,122	25,574	△4,548	△15.1%	수송 △9.8%, Yield △5.9%
연관사업	19,058	19,751	+693	+3.6%	항공우주+899억원, +13.8%
영업비용	119,881	120,091	+210	+0.2%	
연료비	32,958	31,832	△1,126	△3.4%	급유단가 △8.3%, 연료소모량 △0.4%, 평균환율 +6.0%
연료비 외	86,528	88,259	+1,731	+2.0%	
영업이익 [영업이익률]	6,674 [5.3%]	2,909 [2.4%]	△3,765 [△2.9%p]	△56.4%	
영업외손익	△8,027	△9,752	△1,725		
순이자비용	△4,548	△5,059	△511		
외화환산차손익	△3,636	△3,758	△122		2018년말 대비 VS +39.7원 (+3.6%)
파생상품손익	+464	+931	+467		
법인세차감전순손익	△1,353	△6,843	△5,490		
당기순손익	△1,074	△5,708	△4,634		

• 평균환율: 2018년 1,100.4원/USD □ 2019년 1,166.1원/USD (+65.7원, +6.0%)

요약재무상태표 (대한항공 별도 기준)

□ 리스 회계기준 변경, 환율 영향 등 제외 시, 순 차입금 6,446억원 감소

- 리스회계기준 변경 영향: 부채비율 +52%p

- 환율상승 영향: 부채비율 +64%p

☞ 부채비율 변동 +103%p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8년	2019년(E)	증 감		비 고
유동자산	35,702	32,579	△3,123	△8.7%	
현금성 자산	12,613	11,458	△1,155	△9.2%	단기금융상품포함
비유동 자산	208,031	223,727	+15,696	+7.5%	
항공기 관련 자산	150,276	164,118	+13,842	+9.2%	리스 회계기준 변경 +1.13조원
자산 총계	243,733	256,306	+12,573	+5.2%	
금융 부채 (차입금)	146,732	157,568	+10,836	+7.4%	리스 회계기준 변경 +1.475조원, 환율 영향 +2,532억원, 순차입금 △6,446억원
기타 부채	66,782	70,574	+3,792	+5.7%	
선수금	35,384	36,378	+994	+2.8%	
부채 총계	213,514	228,142	+14,628	+6.9%	부채비율 707% □ 810% (+103%p)
자본 총계	30,219	28,164	△2,055	△6.8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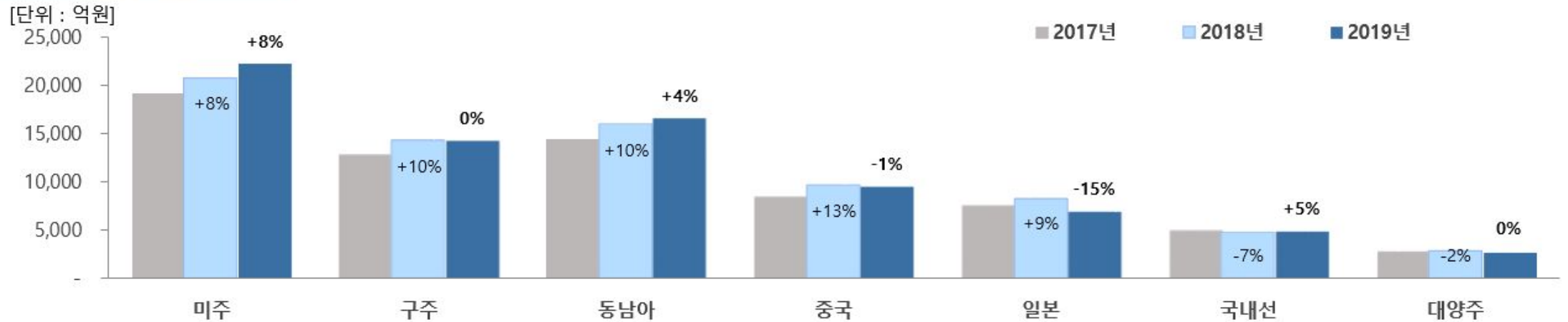
• 기말환율: 2018년 1,118.1원/USD □ 2019년 1,157.8원/USD (+39.7원, +3.6%)

여객사업

□ 외부 악재(일본, 홍콩) 및 대외 변수(환율, 유가 상승)에 대한 효과적 대처로 수송 실적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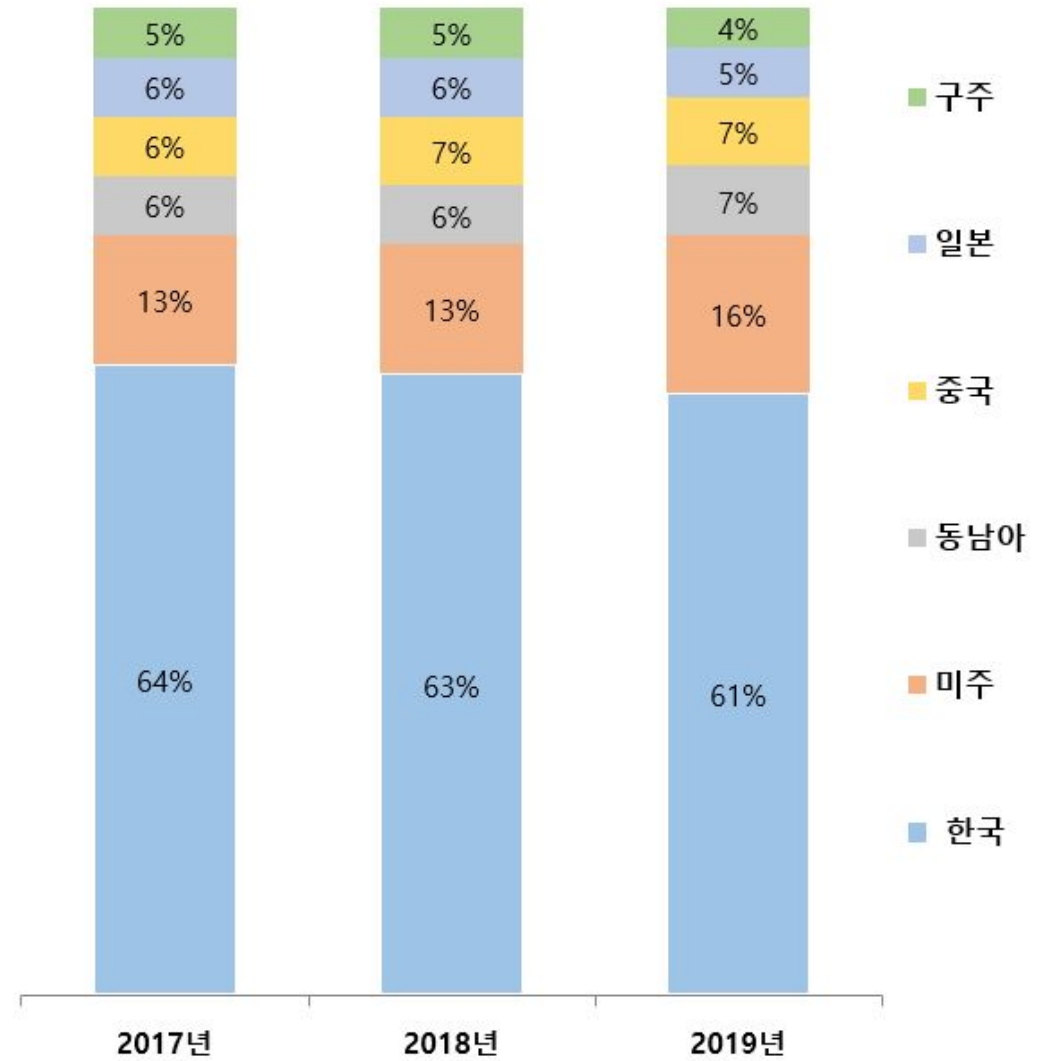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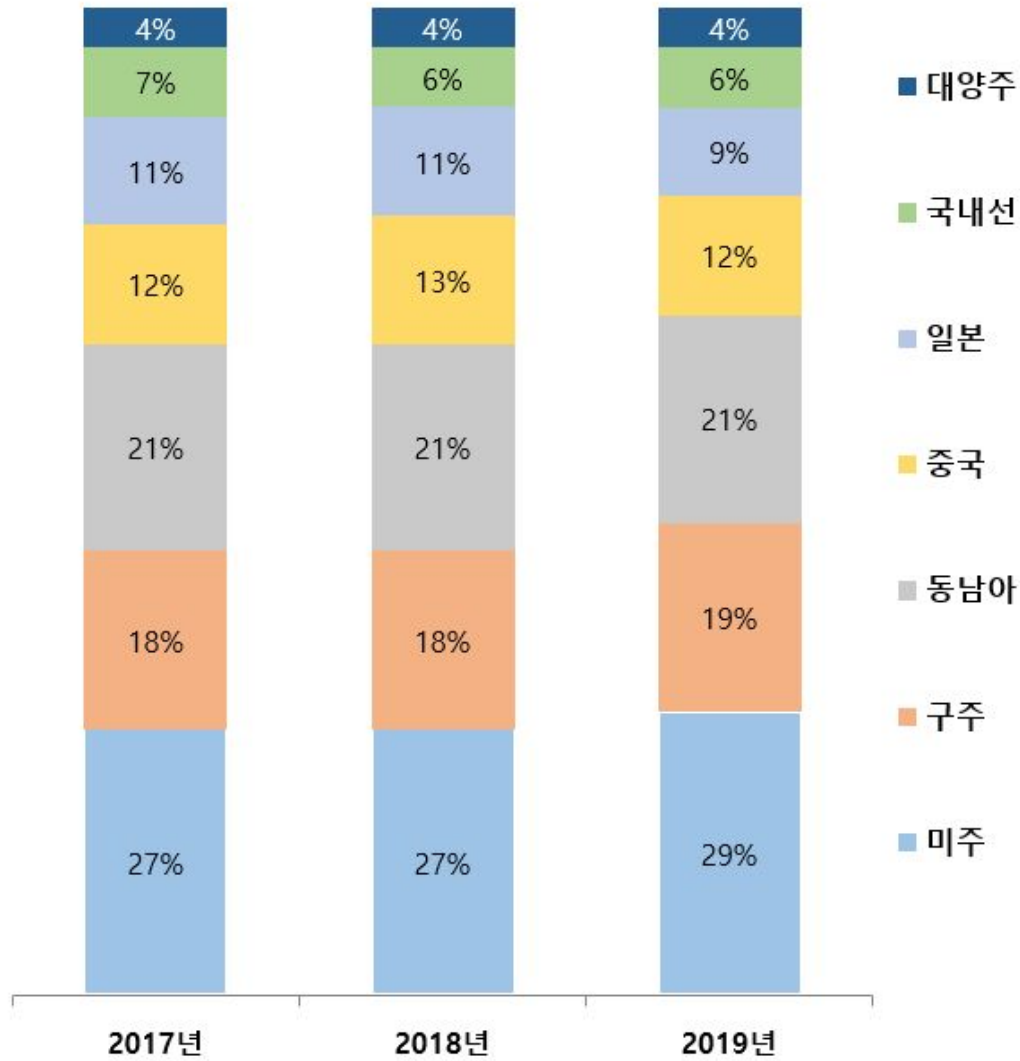
-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효과를 통한 미주노선 수요성장 지속
- 수요 급감한 일본/홍콩을 대체하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발 및 부정기 운영 확대

노선별 매출



구 분	2017년	2018년		2019년	
		연간	전년비	연간	전년비
공급 (백만km)	98,405	99,918	+1.5%	101,108	+1.2%
수송 (백만km)	77,843	80,191	+3.0%	83,273	+3.8%
L/F	79.1%	80.3%	+1.2%p	82.4%	+2.1%p
Yield (원)	90.5	96.5	+6.6%	93.3	-3.3%
여객 수익 (억원)	70,455	77,375	+9.8%	77,675	+0.4%

여객사업 - 노선/판매지역별 비중



노선별 매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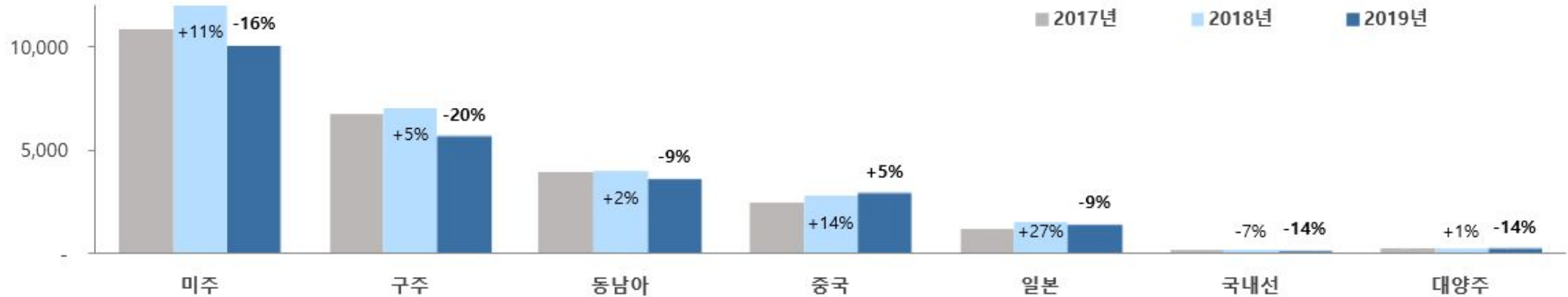
판매지역별 매출 비중

화물사업

- 미·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항공화물 수요 감소
- 성장 시장 공급 증대 및 글로벌 생산기업/대형 화주 대상 판매 확대로 실적 제고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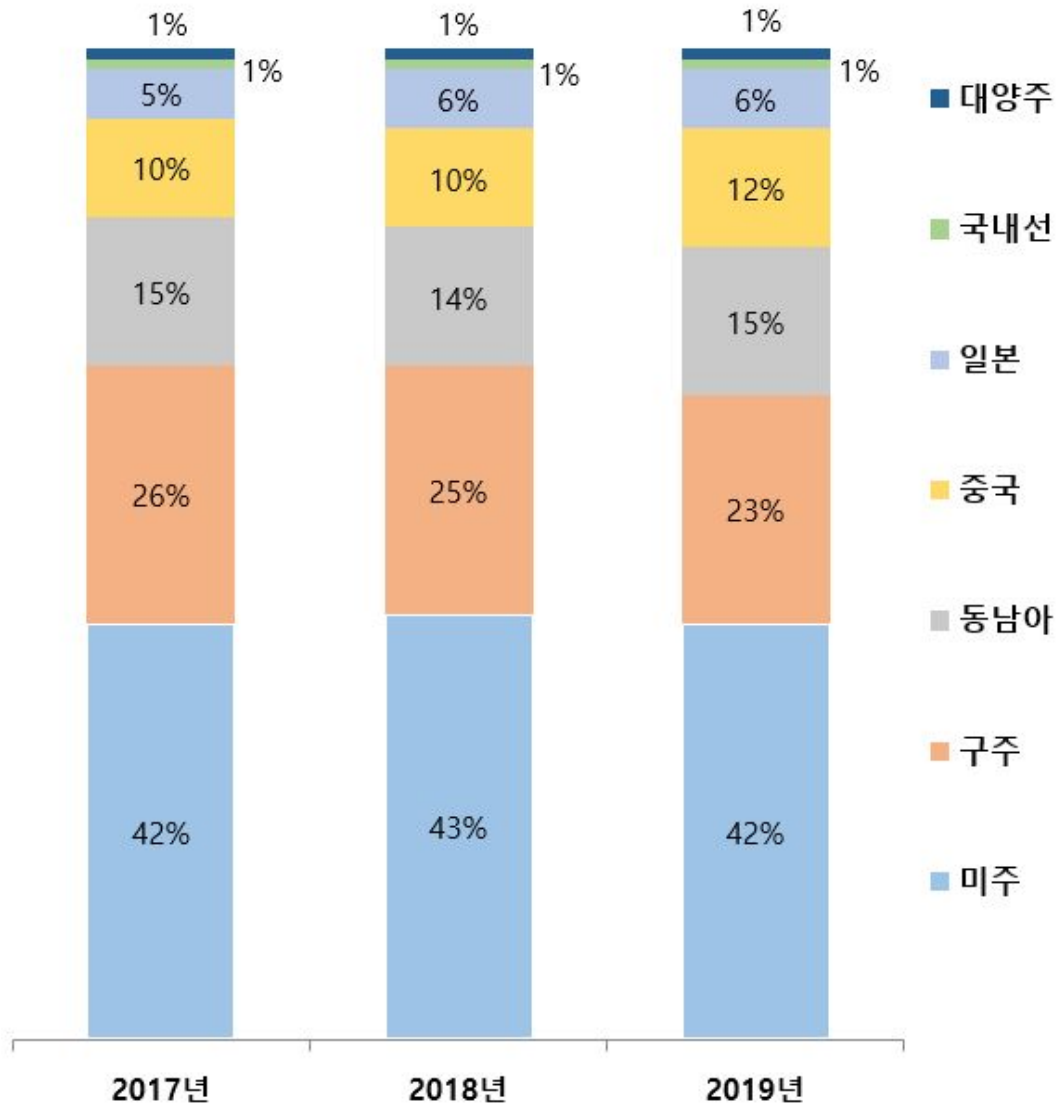
노선별 매출

[단위 : 억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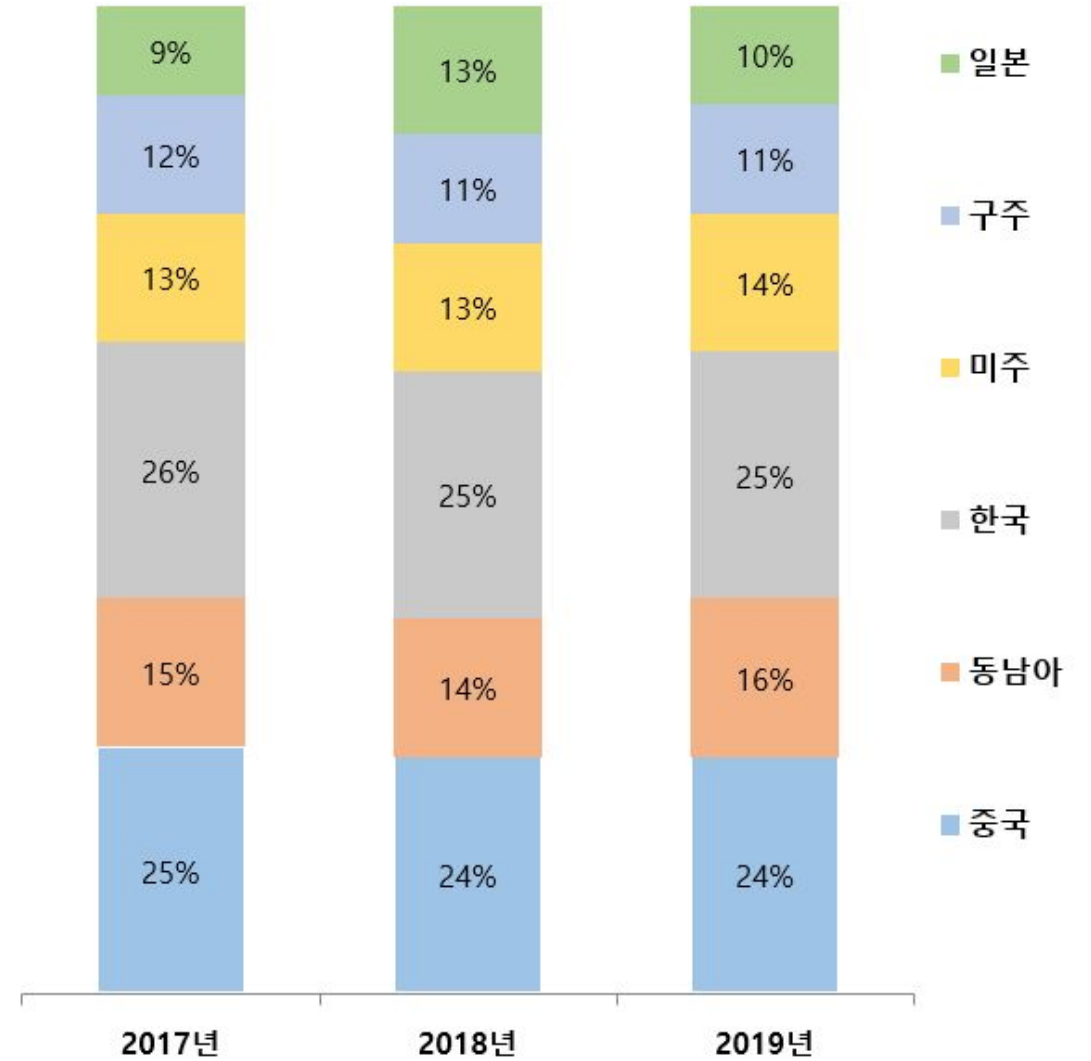


구 분	2017년	2018년		2019년	
		연간	전년비	연간	전년비
공급 (백만톤km)	10,944	10,837	-1.0%	10,480	-3.3%
수송 (백만톤km)	8,593	8,293	-3.5%	7,482	-9.8%
L/F	78.5%	76.5%	-2.0%p	71.4%	-5.1%p
Yield (원)	326.9	363.2	+11.1%	341.8	-5.9%
화물 수익 (억원)	28,087	30,122	+7.2%	25,574	-15.1%

화물사업 - 노선/판매지역별 비중



노선별 매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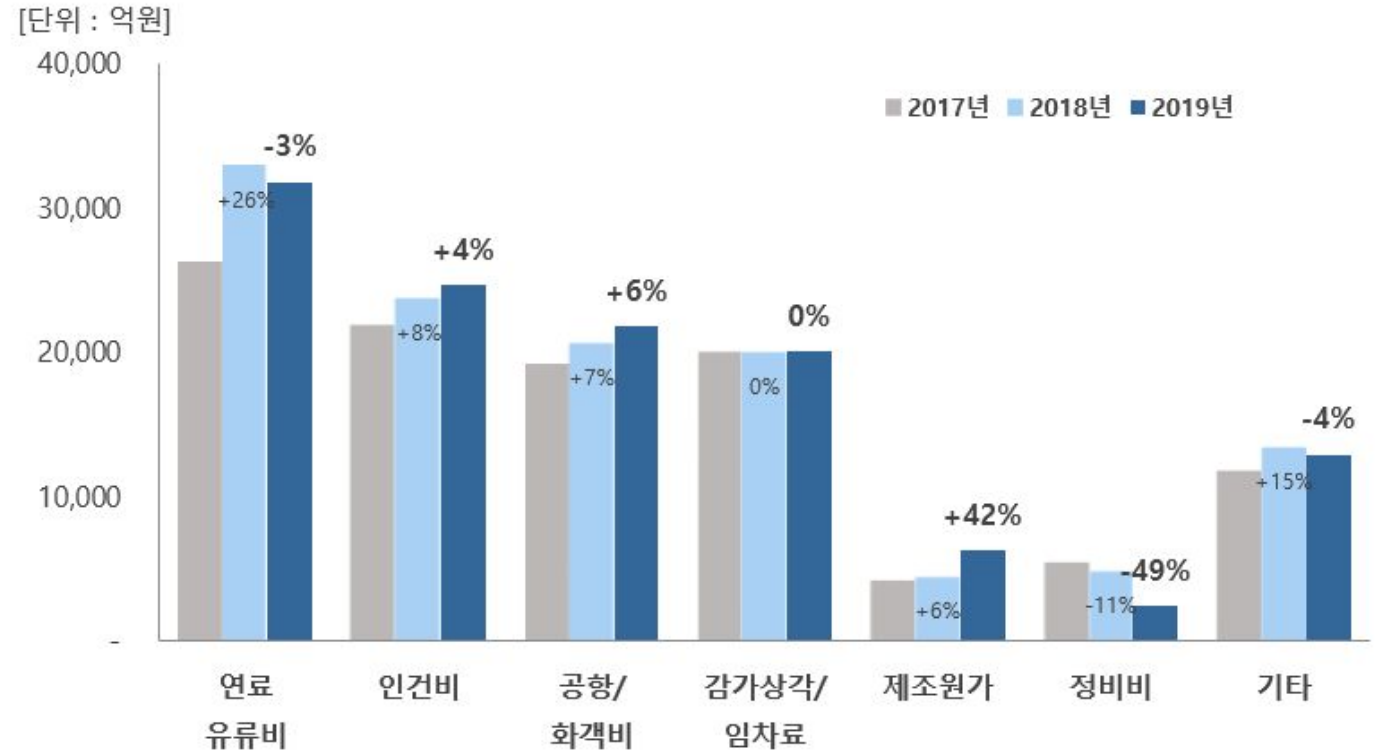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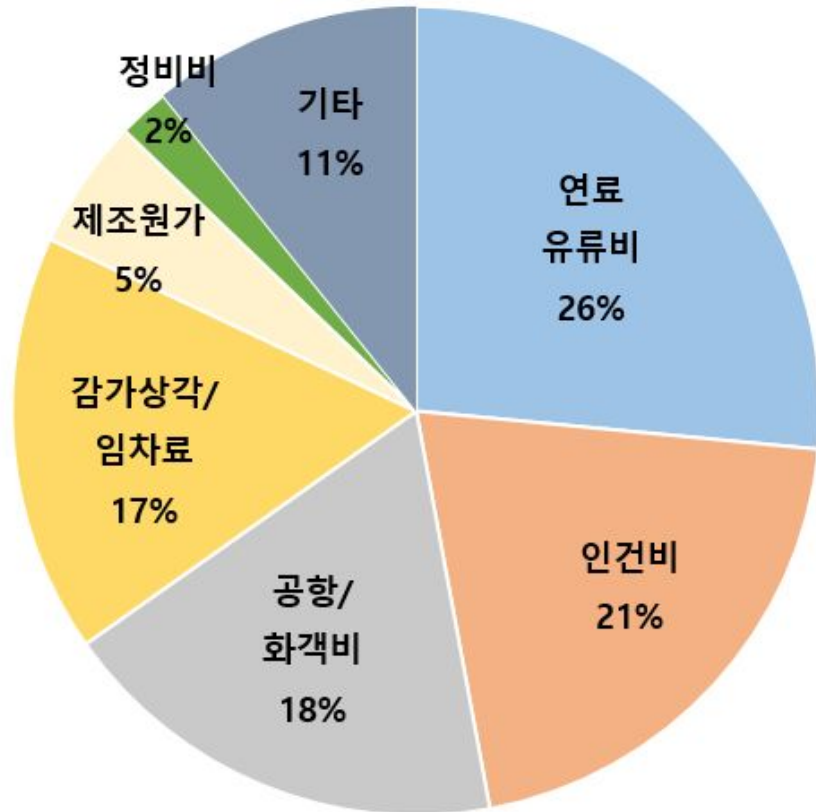


판매지역별 매출 비중

영업비용

□ 영업비용 12조 91억원: +605억원, +0.5% (yoy)

- 연료유류비 3.2조원 (-1,126억원, -3.4%) : 유류비 단가 하락, 환율 상승
- 인건비 2.5조원 (+1,008억원, +4.3%) : 평균인원 증가 및 임금/4대 보험/용역비 인상
- 공항화객비 2.2조원 (+1,247억원, +6.1%) : 공항이용료/조업료 인상 및 환율 상승



◆ 중장거리 노선 운영 확대

- 미주/동남아 노선 공급 증대 및 환승 수요 유치 강화 (L.A, 보스턴, 싱가포르, 델리 노선 등 증편)
- 동유럽 목적지 다변화 및 수익 증대 (5월 부다페스트 신규 취항)

◆ 델타 조인트벤처 안정화 및 실적 개선

- 환승 수요 증대 및 미국 국내선 연결 판매 증대 (조인트벤처 네트워크 활용)
- 미주 지역 Mainstream 상용 판매 지속 증대

◆ 기재 운영 효율성 제고

- 기종별 운영 패턴 최적화
- 부정기 활성화로 탄력적인 공급 운영 및 신규 여행 수요 육성

◆ 성장 시장 개발 통한 수익 제고

- 신규 시장 화물기 운항 확대 (동유럽, 중국, 중남미 등)
- 성장 시장 공급 증대 지속 (생산기지 이전 등 고려)

◆ 글로벌 생산기업 및 대형 포워더 수요 유치

- 글로벌 생산기업 및 대형 화주 대상 마케팅 강화 (반도체 장비, 의류 등)
- 고성장 품목 판매 확대 (의약품, 전자상거래, 신선화물, 통신장비 등)

◆ 가용 공급 최대 활용으로 수익성 개선

- 수요 증가 노선에 가용 공급 최대 활용 (Extra 편성 등)
- 안정적 수요 선점 통한 수익 제고 (프로젝트성 물량, 계약성 물량 등)

항공기 보유 현황

구분	기종	2018년말	2019년말
중대형기	A380	10	10
	A330	29	29
	B747-400	2	2
	B747-8I	10	10
	B777	42	44
	B787-9	9	10
소형기	B737-800/900	32	31
	A220 (CS300)	9	10
여객기 계		143	146
화물기	B747F	4	4
	B747-8F	7	7
	B777F	12	12
화물기 계		23	23
총 계		166	169

• B737-MAX8: 항공기 안전 확보 시점까지 도입 연기

감사합니다